

<2017년 12월 24일 주일말씀>

## 구주, 사랑의 탄생

본 문 누가복음 2장 11-14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 ◆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하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로 멸망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 ◆ 〈구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어

그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펴 나갔습니다.

- ◆ 그러나 〈모르는 자들〉은

자기들이 그리도 기다리던 ‘구주’가 와서

사랑으로 대해 줘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모르고 계속 반대하고 불신했습니다.

<아는 자들>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함으로 <자녀권 이상세계>를 이루었습니다.

<모르는 자들>은 계속 반대했지만,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중심한 새 역사’가 펼쳐져 나갔습니다.

이는 ‘구약보다 더 차원 높은 구원을 이루는 신약역사’입니다.

- ◆ <구시대 구약 4000년의 약속>은  
<새 시대 신약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4000년 동안 구약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었습니다.  
고로 <구약>은 ‘희망의 신앙’만 했습니다.

<신약의 때>가 되어 ‘메시아’가 와야  
비로소 ‘메시아’를 맞고 희망과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살아 있던 구약인들>은 예수님을 불신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권 사랑’을 못 받으니,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종’으로 끝났습니다.  
  
그로 인해 <메시아를 기다리다 죽은 자들의 영>에게까지  
그 영향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당세를 살았던 구약인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다면,  
마치 <자기 후손>이나 <자녀>가 임금의 아들과 결혼하면  
그 <선조>나 <부모>까지 다 ‘왕의 혈통’ 이 되듯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기다리다 죽은 자들>까지  
한 혈통으로 연결되어 ‘종’ 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물론 <가다리다 죽은 자들의 영>도 각자 책임을 해야 되지만,  
<당세에 메시아를 믿고 따른 자들>로 인해  
<메시아를 기다리다 죽은 자들의 영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 ◆ <신약역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역사를 펴 나갔고,  
2000년 동안 ‘자녀권 사랑 세계 왕국’ 을 이뤘습니다.

### <잠시 쉬었다가>

- ◆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어  
때마다 ‘선지자’ 를 보내시고 ‘중심인물’ 도 보내시고,  
시대에 맞게 ‘구원자’ 를 보내 주십니다.

- ◆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는
  - ‘사랑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실존체’ 입니다.
  - ‘참사랑의 존재’ 입니다.

### 그를 믿고 따라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믿고 <새 시대>를 믿고 살게 됩니다.

- ◆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시대에 따라 계속 차원을 높여서 <사랑의 새 역사>를 펴 나가십니다.

〈구약에서 한다고 했던 새 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부터 2000년 동안  
〈자녀급 사랑〉으로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인들〉은 ‘구시대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몰랐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직접 말씀하고 행하는데,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새 시대 새 말씀〉을 안 배우니 몰랐습니다.

〈신약에서 한다고 한 새 일〉은

그다음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사명자’를 보내서  
〈새 시대 말씀〉을 전하며 이루십니다.

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시되,  
〈새 시대 구원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 〈새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루십니다.

- ◆ 〈사람들〉은 시간의 착오가 있지만,  
〈하나님〉은 1분도 착오 없이 ‘때’가 되면 행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언한 새 역사〉도

시간적 착오 없이 ‘때’가 되니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부급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고 진행 중’입니다.

- ◆ 마치 ‘제삿날’을 생각하듯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만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사랑으로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메시아’를 보내 주셨으니,

매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구원자를 생각하고  
사랑에 불타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평화’가 되고,  
<하늘>에는 ‘영광’이 됩니다.

<육>도 <영>도 ‘이상세계’가 됩니다.

### <잠시 쉬었다가>

- ◆ 누구든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지난날>은 다시 못 삽니다.

고로 <현재>를 중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합니다.

지구도 뒤로는 못 돌립니다.

<지나간 날>은 ‘죽은 격’입니다.

<지금 남은 시간>만 ‘살아 있는 시간, 살아 있는 삶’입니다.

- ◆ 이와 같이 <지나간 구약, 신약역사>도  
하나님은 다시 못 하시고 안 하십니다.

사람도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못 삽니다.

<과거>는 이미 다 살아서 죽은 격이고,  
<현재>만 살아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역사>를 펴 나가십니다.

종교도, 정치도, 사회도

<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 ◆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작년의 삶〉도 아니고 〈어제의 삶〉도 아닙니다.

〈현재의 삶, 오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도 ‘지나간 역사’ 는 그것으로 끝났고,  
인생도 ‘지나간 삶’ 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다만 ‘과거에 산 것’ 으로 인해 ‘현재’ 에 얻고 삽니다.

〈현재, 지금〉이 중합니다. 고로 지금 제대로 잘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하면, ‘과거에 얻은 것’ 을 다 잃게 됩니다.

신앙이 파선된 자들은 ‘과거에 얻은 것들’ 을 다 상실하고,  
〈사망의 육과 영〉만 가지고 초라하게 삽니다.

모두 정신 차리고 ‘끝’ 에서 잘해야 됩니다.

거의 다 왔는데 생각을 잘못하여 ‘섭리의 삶’ 을 뺏기면 안 됩니다.

- ◆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귀하고 중하다.  
고로 지금 잘하는 데 신경 써라.” 하셨습니다.

- ◆ 농기구도, 중장비도, 자동차도  
오래되면 닳고 힘이 없어지고 고장 납니다.  
폐차하거나 폐기하고 다시 사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새 역사〉가 ‘다시 산 새 기계’ 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인’ 이십니다.

<주인>을 따라 사랑하며 가야 됩니다!

- ◆ <새 역사>가 오면, 핵심은 다 ‘젊은 자들’ 입니다.  
<새로 시작한 역사>라 그러하고 <희망 있는 새 역사>라 그러합니다.

- ◆ <새 시대>에는 모두 ‘새것’ 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 ◆ <사랑>도 ‘새 사랑’ 입니다. ‘차원 높은 사랑’ 입니다.  
매일 차원 높게 새롭게 주 사랑,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입니다.

- ◆ <교회>도 예전의 ‘전세살이’ 는 지나가서 끝났습니다.

고로 그것으로는 더 이상 못 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새것’ 을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세살이’ 에서 벗어나 ‘새 곳’ 으로 가니,  
궁궐같이 좋습니다.

그러나 큰 성전으로 가니 자리가 남아서 쾅~한 교회도 있습니다.

앞날을 보고 샀으니, 늘 감사하고 서로 화목하며  
계속 생명들이 차고 넘치게 해야 됩니다!

**새 성전을 샀는데도 이미 꼭 잔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로 계속 생명들이 차고 넘치게 하기 바랍니다!**

- ◆ 섭리인들 중에는

**<이방에서 모르고 살다가 새 역사를 만난 자들>도 많고,**

**<기성에서 크고 자라다가 새 역사로 온 자들>도 많습니다.**

〈기성에서 크고 자라다가 새 역사로 온 자들〉은

마치 ‘전세 교회에서 새 성전을 얻어 나온 것’ 과 같습니다.

〈새로운 것〉은 ‘받아 본 자’ 만 압니다.

〈전환하고 차원 높여 새것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역시 ‘받아 본 자’ 만 압니다.

말씀도, 사랑도, 새 시대도, 차원 높은 영의 세계도 그러합니다.

- ◆ 〈구약〉은 지금도 4000년 전에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맞고 사는 신약인들〉은 다른 신앙을 하고 삽니다.

〈메시아 불신〉으로 인해 ‘정치’ 까지 영향을 받아서 그대로 삽니다.

〈불신자들〉은 당세에 메시아와 함께 살아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을 못 봅니다.

〈메시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메시아〉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참으로 큼니다.

- ◆ 〈성약역사〉는 구약과는 4000년의 차이가 있고,  
신약과는 2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도 〈사랑〉도 〈구원의 급〉도 그만큼 차이가 있고,

〈영의 세계〉도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늘의 그림자 같은 세상’ 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새 말씀’ 을 행하니,

그 육신이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 가 되었습니다.



<그림자 같은 육신>이 ‘사랑의 대상체’이니,  
<근본이 되는 영혼>도 ‘사랑의 대상체’로 변화됐습니다.

고로 <영이 받는 천국>도 보통 천국이 아닌 ‘황금성 천국’입니다.

###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제 <과거 시대, 과거 역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맞은 자들>은 ‘현재, 지금’을 쳐다보고,  
<사랑 휴거>를 귀히 여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땅>에는 ‘이 시대 새로운 평화’가 일어나고,  
<하늘>에는 ‘사랑의 영광’이 됩니다.

그로 인해 ‘자기의 운명’과 ‘시대의 운명’까지 좌우되고,  
<사랑의 이상세계 역사>를 펴며 살게 됩니다.

◆ 메시아는 ‘사랑’으로 옵니다.  
그 사랑을 꼭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랑을 안 받으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세계도 냉랭하고,  
<사랑의 이상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도 ‘사랑’입니다.

<구시대>는 ‘이 사랑’이 식어서 고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새 역사에 주시는 사랑>을 못 받으니,  
'세상 세상, 육 사랑' 으로 채우고 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과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끊이지 않고 늘 희망을 이룹니다.

-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앞서가시며  
1분도 착오 없이 <새 역사>를 펴며 독촉하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구시대>에 속하거나 <세상>에 속해  
똑같은 것을 반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자손들도 같은 길을 갑니다.

<구주의 사랑>이 없으니, '미움·시기·질투' 입니다.

- ◆ 우리는 <구주의 사랑>을 받고 <새 역사>를 맞았으니,  
이 시대에 해당되게 삼위께 영광 돌리며,  
차원 높은 새로운 사랑으로 '신부의 삶' 을 살아야 됩니다.

시대를 아는 자들이 책임지고 삼위를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은 '태양 같은 사랑' 입니다.  
그 사랑으로 '구주' 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해서 '구주' 를 이 땅에 보내신 성삼위께  
사랑으로 감사의 영광을 돌리며  
<사랑과 평화의 구주 탄생>을 축하하기 바랍니다.

(\* 구주, 사랑의 탄생 - 친필 사인 있음, 각 교회마다 사용하면 됨)